이달 도내 체육행사 '풍성'

남원서 도지사배 등산대회
무주서 도지사배 족구대회
순창 주니어 테니스대회 등

3월 전북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체육 행사가 열린다.

25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제4회 전북도지사배 등산대회와 제12회 전북도지사기 족구대회가 오는 31일 남원과 무주 일원에서 각각 펼쳐진다.

전북산악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등산대회에는 시·군연맹 회원과 산악동호인 등 약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원 덕음산 일원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은 남원 춘향테마파크 사랑의광장에서 열리며 단체전과 일반부(5명 1조), 어르신부(4명 1조)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는 이론(등산 상식·산악 안전 등)과 산행, 장비, 복장 등을 평가해 점수가 주어진다.

무주 적상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족구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등 800여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경기는 호남·호서 일반부(호남·호서지역 일반부)와 중부권 일반2부(충남·대전·세종·전북 2부 선수), 전북 일반3부(전북 3부 선수) 등으로 나눠 치러지며, 리그전으로 예선전을 치른 후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위 입상팀에게는 상장 등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2019 순창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리고, 5월에 펼쳐지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레슬링과 태권도, 야구, 수영 등 각 종목마다 선발대회도 진행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각종 대회가 예정 돼 있어 도민들이 땀을 흘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채롭고 다양한 체육대회가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스포츠계 폭력·성범죄 제보, 인권위로 창구 단일화

다양 창구 오히려 피해자 혼란 가중
전화·이메일 상담·진정 가능
피해자 심리 회복, 법률 상담도 지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 제보 등의 창구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으로 일원화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대한체육회와 협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학교·체육단체 등은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각종 제보들을 각자 받아 조사해왔다. 하지만 다양한 창구가 오히려 피해자 혼란을 야기하는 역효과가 발생해 이번 사안만큼은 인권위 특조단을 단일 창구로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전화 상담은 대표전화(1331)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스포츠인권' 검색)을 이용해 익명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이메일(sports@nhrc.go.kr)로도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과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여성가족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조단 관계자는 "더 많은 피해자가 조사단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게 홍보와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특조단을 출범했고, 이후 한 달 간 각종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진정 유형은 ▲선수단 또는 학교장의 폭력·성폭력 행위 방치로 인한 피해 ▲폭력행위 전력 지도자의 재임용 ▲폭력행사 지도자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대회 출전 불이익 등이었다. /뉴시스

이대호 신임 프로야구선수협회장 "저연차·저연봉 선수 처우개선"

"저연차·저연봉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선수와 구단, 팬 등의 중간 역할을 잘 하겠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으로 선출된 이대호(37·롯데 자이언츠)가 25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대호 회장은 "후배들이 뽑아줘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선배들이 잘 만들어 높은 자리라 책임감이 크다. 어려운 시기에 맡았다. 구단들과 잘 대화해 잘 하도록 하겠다. 이익만 생각하기보다는 팬들을 생각해서 잘 하겠다. 대변인으로서, 회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이재성이 콜롬비아와 A매치 평가전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 NFC(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공식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년 전, 콜롬비아전 승리로 자신감 얻어"

축구대표팀 이재성, 오늘 개최 A매치 평가전 앞두고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이재성(홀슈타인 킬)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 콜롬비아와의 대결을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를 상대로 A매치 평가전을 갖는다.

이재성은 25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와 콜롬비아 모두 2년 전과 달리 감독님이 바뀌었다. 예전 경기와는 다를 것이다"며 "그 경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감독님이 원하는 전술에 맞춰 추구하는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선수들의 몫이다. 승리를 위해서 발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2017년 11월 수원에서 콜롬비아와 한 차례 평가전을 가졌다. 손흥민(토트넘)의 멀티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이재성도 선발로 출전했던 경기다.

이재성은 당시 손흥민, 권창훈(디종)과 호흡을 맞췄다. 작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고생했던 권창훈이 22일 볼리비아전에서 1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삼각편대를 다시 한 번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재성은 "그때 같이 뛰었던 선수들과 호흡이 좋았다. 능력 있는 친구들이라 나를 편하게 잘 받쳐준다. 훈련도 즐겁게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강인(발렌시아), 백승호(지로나) 등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 승선한 것에 대해선 "어리지만 충분한 능력과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대견하다"며 "나는 그 나이에 그러지 못했다. 신기하다. 더 노력해서 우리 축구의 위상을 올리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성은 올해 1월 아시안컵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오른 발가락을 다쳐 잔여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콜롬비아전에서 복귀 무대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축구 A매치 6경기 연속 매진 유력… 5000장만 남아

축구대표팀을 향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른다. A매치 6경기 연속 매진이 예상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의 강호 콜롬비아와 A매치 평가전을 갖는다.

콜롬비아는 남미 전통의 강호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즐비하다.

25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A매치 6경기 연속 매진이 유력하다.

콜롬비아전 유료 티켓 5만7000장 중 5만2000장은 이미 예매가 끝났다. 남은 티켓은 예매와 현장에서 판매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금 흐름으로 볼 때, 내일 콜롬비아전도 매진이 예상된다"고 했다. /뉴시스